

# 쇼핑·간편결제 앱 장애인에게 '그림의 떡'

“쇼핑을 하고 싶어도 정작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은 별로 없어요. 앱을 일일이 내려받은 후 사용해 보지만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A씨)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앱 접근성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마트폰 쇼핑 앱과 간편결제 앱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쇼핑앱들의 경우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최근 사용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간편결제 앱도 ‘삼성페이’를 제외하고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명여대 웹발전연구소(www.smartbiz.kr)가 11번가, 쿠팡 등 12개 주요 쇼핑 앱과 간편결제 앱의 장애인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조사한 결과, 쇼핑 앱의 경우 현대Hmall 앱이 8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G마켓 앱은 78.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현대Hmall도 B등급으로 불편함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 ‘대기업 제공하는 앱’ 장애인 접근성 미흡 삼성페이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용 불편

업체별로는 현대홈쇼핑의 현대Hmall 앱은 화면읽기 기능을 이용해 시각장애인도 쇼핑을 할 수는 있었으나 일부 링크를 읽을 수 없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했다.

홈쇼핑 앱과 SK플래닛 11번가 앱은 일부 메뉴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다른 페이지로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쿠팡 앱은 로그인 ‘이메일’, ‘비밀번호’ 입력창에 레이블이 누락돼 입력창의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용하기 어려웠다.

최근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간편결제 앱의 경우는 5개 앱 중에서 삼성페이는 9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SSG페이는 7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삼성페이’ 앱은 모바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카드등록 페이지의 일부 문제를 수정하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시각장애인 혼자서는 카드를 등록할 수 없었으며, 안드로이드 앱만 제공하고 iOS 앱은 제공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페이나우(Paynow)’ 앱은 전체적으로 앱 접근성이 미흡한 수준으로 본문 영역의 이미지에 초점이 적용되지 않아 페이나우 사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또한 하단 푸터 영역 3개의 버튼에 대체텍스트가 없거나 토크백으로 읽을 수 없어서 장애인이 페이지의 구조 파악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케이페이(KPAY)와 페이코(PAYCO) 앱 등도 모바일 접근성이 그다지 좋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페이코(PAYCO) 앱은 내지갑 페이지의 카드 등록 시 유효기간, CVC, 비밀번호 보안키패드 등의 모든 링크에 링크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입력서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안진수 기자



**불법영업 중단하라**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 노랑진 수산시장에 전국에서 상경한 어민들이 노랑진수산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고 있다.

## 익산·부안국토청, 주민불편 해소 ‘맞손’

### 섬진강 등 관할권경계지역 국도·국가하천 사업 점검

익산국토청과 부안국토청이 관할 권경계지역 인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안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국도 및 국가하천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전남 구례 섬진강변에 위치한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람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생하는 강 만들기’를 다짐했다.

또한 광양까지 약 40km의 섬진강 자연경관 라이딩을 함께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국도 2호선인 진상-하동(익산국토청 시행)을 비롯, 하동-정량(부안국토청 시행)과 최근 개통한

국도 19호선 하동-평사리 사업 현장(부안국토청 시행) 등을 방문해 구체적인 협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진상-하동·하동-정량’ 도로공사는 올해 준공예정이며 광양과 하동을 연결하는 공사로 두 기관이 구간을 나눠 시공하고 있다.

이 도로가 개통할 경우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게 되며 동서회합의 축이 되는 도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진상-하동·하동-정량’ 공사의 경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공사기간 단축과 두 구간 간 일관성 있는 공사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대성 익산국토청장은 “영남과 호남이 함께 하는 화해장터처럼 익산청과 부안청이 협업을 통해 도로연계 개선과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 지방 기술개발사업에 수도권 업체 선정... “균형발전 훼손”

지방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거점 사업과 관련해 수도권 업체를 기술개발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하는 바람에 균형발전이란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광역거점사업은 특정 산업 관련 연구시설이나 장비를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기반조성사업’과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 예산배분도 지켜지지 않아

사업’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11년 이후 총 205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면서 해당 광역거점사업이 진행중인 곳과는 다른 지역의 업체를 절반 이상(105개) 선정했다.

특히 이 가운데 42개 업체가 서울이나 경기, 인천 소재 업체여서 과제 수행에 따른 640여억원의 국비 지원금과 고용·매출 증가 등의 효과가 엄동하게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주 기자

또 산업부는 광역거점사업을 지역별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 목표와 전략, 지역별 예산배분 기준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수행 계속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광역거점사업의 예산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지역사업 예산(8,325억원)의 절반(47.6%)에 육박하는 3,964억원으로 증가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지역별 예산배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관련 예산이 0원인 지역이 있는가 하면 최대 756억원이 편성되는 지역이 있는 등 형평성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성주 기자

## 전북중기청, 중기 계약학과 운영 대학 추가 모집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2016년 9월 가을학기 석사과정 채용 조건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대학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지역특화산업학과’ 8개 학과와 ‘협·단체 수요맞춤형 학과’ 2개 학과 등 총 10개 학과이다.

계약학과 운영 대학에는 학생 수에 따른 등록금과 함께 학과운영비(학기당 35백만원 수준)가 지급되며, ‘협·단체 수요맞춤형 학과’ 참여 협·단체에는 활동비(학기당 1,000만원)가 별도로 지급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설치·운영을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5월 6일까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북지역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박사과정(전주대 탄소융합공학과), 석사과정(전주대 탄소노부품소재공학과), 학사과정(전주대 탄소융합공학과, 전문학사(전주비전대 그린수송기계시스템과) 등이다. /신광영 기자

## 전북은행 -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참가자 모집

### 내달 23일~6월17일 접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는 20일 도내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2016 다문화가정 온가족 친정나들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 맞는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을 방문하지 못했던 결혼이주여성이나 한국 가족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해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정영수 기자

참가대상은 결혼이주여성이나 내국인과 결혼한 후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최근 5년간 친정방문 경험이 없으며 배우자 동행이 가능한 가정으로, 대상으로 선정되면 온가족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및 130만원 상당 여행경비, 가족사진 촬영 및 액자 등이 지원된다.

모집인원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15가족을 선발할 예정이고, 참가자 모집공고는 5월 20일까지이며 접수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다. 대상자 발표는 6월 24일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영수 기자

## 하이트 ‘3세대’ 맥주 ‘올뉴하이트’ 출시

하이트진로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시장 선점에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이달 25일 원료비중, 공법, 상표 등 전 부문에 걸쳐 제품속성을 바꿔 더욱 진화된 ‘3세대’ 올뉴하이트(All new hite)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올뉴하이트는 페일라거에 최적화된 목넘김을 디자인해 2년 전 이름만 빼고 다바꾼 2세대 ‘뉴하이트’를 거쳐 더욱 진화된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올뉴하이트는 하이트진로의 80여년 노하우가 집약된 맥주로 BI(Brand Identity)를 제외한 전 부문에 걸쳐 새롭게 변화된다.

올뉴하이트의 특징은 맥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목넘김을 디자인했다는 점이다. 부드러운 목넘김에 최적화된 알코올 4.3%에 맥아와 호프 등 원료함량을 조절해 ‘쉽고 가벼운’ 목넘김을 만들어냈다.

또, 하이트만의 빙점여과공법(Ice Point Filtration System)을 업그레이드 한 엑스트라 콜드(Extra Cold)공법을 적용했다. 이 공법은 숙성부터 생산까지 전 공정을 얼음이 얼기 직전 온도인 -3°C~-2°C로 유지하는 기술로 최상의 목넘김과 깔끔한 페일라거의 특징을 살렸다.

상표는 정통성과 모던함을 함께 표현하도록 디자인했다. 브랜드 로고는 국내 최초 맥주회사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강조한 기존 서체를 유지했다. 대신 기존 상표에 있던 인포그래픽을 대폭 단순화해 깔끔하고 모던한 이미지로 변경했다.

하이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맛과 이미지로 인기를 얻으며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끌었다. /이성주 기자

2018년부터 햄·소시지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2018년부터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업체는 고기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안을 5월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햄·소시지에 고기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영업자가 고기 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고기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보관법을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 표시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표시사항은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했다.

개정안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기존 제품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효기간을 뒀다. /이성주 기자

**전북은행**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약자를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